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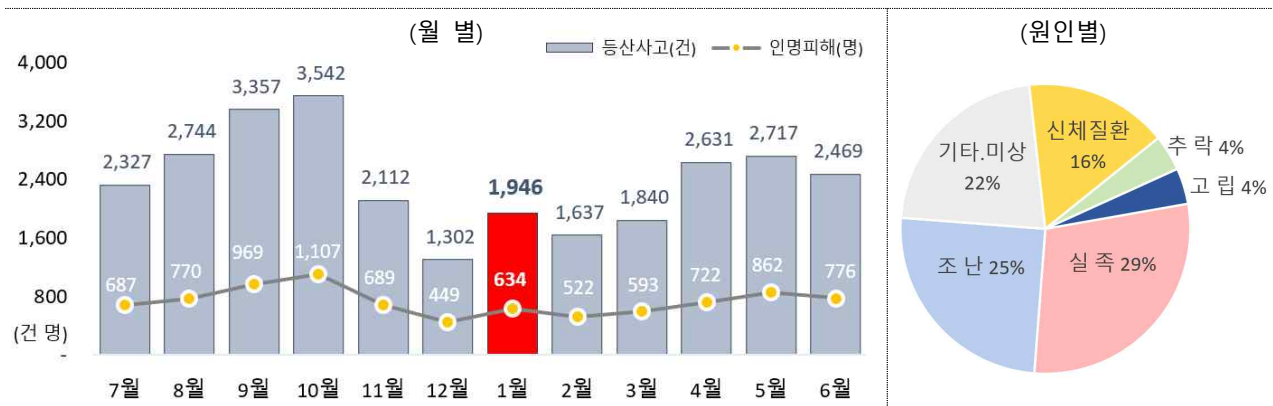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29.(월) 12:00
(지 면) 2025. 12. 30.(화) 조간

해넘이·해맞이 산행, 안전에 주의하세요!

- 평소 잘 아는 장소로, 방한용품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 철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,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특히,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,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최근 3년간('22~'24년) 등산사고는 총 28,624건, 인명피해는 8,780명이 발생했으며,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
- 다만,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,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(1,946건)와 인명피해(634명)가 발생했다.
- 사고 유형별로는 실족(29%)이 가장 많았고, 조난(25%),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(16%)이 그 뒤를 이었다.

< 최근 3년('22~'24년)간 등산사고 현황 >



[출처: 재난연감, 행정안전부]

- 안전한 해넘이·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- 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,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,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.
 - 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, 손전등보다는 이마등(헤드랜턴)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.
 - 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,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(eisen)을 챙겨간다.
 - 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,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.
 - 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, 방한용품(모자·귀마개·장갑 등),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,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.
 - 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,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.
 - 특히,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.
 - √ 추위 등으로 평소보다 몸이 떨리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
 - √ 심한 졸림, 발음 부정확, 중심을 잡기 어렵고 외부자극에 무반응 등
 - 아울러,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.
-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·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,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송정호 (044-205-4505)